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7. 19.(일) 11:00 (지면) 2026. 7. 20.(월) 조간 배포 2026. 7. 16.(목) 오후

제2차 「우리동네 새단장」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

- 7. 20.~7. 31., 지방정부·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7월 20일(월)부터 31일(금)까지를 ‘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’으로 정하고, 지방정부, 해양경찰청, 해양환경공단,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,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활동은 “우리가 함께 만드는, 「우리동네 새단장」”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로,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.

해양수산부는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8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항만, 해안가 및 방파제 등 쓰레기가 집중 유입되는 지역에서 총 4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.

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“항행 안전 및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기 직후 발생한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	책임자	과 장	안용운 (051-773-5300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래 (051-773-5301)